

# 레이던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

Motivation to learn Korean: In the case of first-year Korean Studies majors in Leiden University

남애리 (Leiden University, The Netherlands)

## 1. 서론

Motivation provides the primary impetus to initiate L2 learning and later the driving force to sustain the long, often tedious learning process; indeed, all the other factors involved in SLA presuppose motivation to some extent. Without sufficient motivation, even individuals with the most remarkable abilities cannot accomplish long-term goals, and neither are appropriate curricula or good teaching enough on their own to ensure student achievement. On the other hand, high motivation can make up for considerable deficiencies both in one's language aptitude and learning conditions. (Dörnyei and Ryan, 2015 p.72)

위에 인용된 Dörnyei 와 Ryan (2015)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과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동기(motivation)를 성공적인 제 2 언어 습득/학습의 주요인으로 간주한다. 동기가 무엇인지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려우나 Dörnyei 와 Ushioda (2011)에 따르면 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the choice of a particular action, the persistence with it, and the effort expended on it”) 일반적으로 합의된 동기의 정의라고 한다.

본 논문은 레이던 대학교 한국학과 1학년 전공 필수 과목인 Korean 1.1 수강 초기,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및 한국학 전공 동기를 “왜”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의 초기 학습 동기, 즉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해는, 추후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끈기(persistence) 및 노력(effort)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왜,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었나?
- (2) 한국어 학습/ 한국학 전공 동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 2. 외국어 학습 동기 이론

Gardner(1985, 2010)의 사회교육모형 (Socio-Educational Model), Deci 와 Ryan(1985)의 자기결정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 Dörnyei(2005, 2009)의 제 2 언어 동기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는 많은 외국어 학습 동기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본 논문의 결과 해석 역시 이 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Gardner 의 이론 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개념은 통합 목표 지향 (integrative orientation)과 도구 목표 지향(instrumental orientation)이다. 통합 목표 지향은 학습 대상 언어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기인하는데 목표어(target language) 화자들과 교류하고 그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언어 학습 동기이다. 도구 목표 지향은 외국어 능력을 경제적, 직업적 실리를 얻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동기이다.

자기결정이론은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무동기(amotivation)를 연속선상의 양끝에 놓고, 그 사이에 위치한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를 자기결정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설명한다. 내재적 동기는 학습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만족감에서 기인한다. 외재적 동기는 자기결정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되는데, 외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자기결정 정도의 변화에 따라 점차 내재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자율성 (autonomy), 유능감 (competence), 관계유지 욕구 (relatedness)가 내재화 과정의 필요 요건이다.

제 2 언어 동기 자아 체계 이론은 이상적 제 2 언어 자아(ideal L2 self)와 의무적 제 2 언어 자아 (ought-to L2 self), 제 2 언어 학습 경험(L2 learning experience)을 외국어 학습 동기의 중요한 세 축으로 상정한다. 이상적 제 2 언어 자아는 학습자가 유창한 목표어 구사를 미래 이상적 자아상의 일부로 여기는 데서 기인하는 동기인데, 미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생한 상상력이 동기 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무적 제 2 언어 자아는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데에서 기인하는 동기이다. 제 2 언어 학습 경험은 학습 경험에서 파생된 정서적 요인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McEown, Noel, & Chaffee(2014)는 동기의 다면적 특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숙지하고 여러 방향에서 동기 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perspective-taking approach) 하였다. 위의 세 이론 간의 접점과 상이점은 보다 종합적 견지에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참여자

네덜란드 소재 레이던 대학교 한국학과 1 학년 필수 과목인 Korean 1.1 의 2017 년 가을 학기 등록생 51 명 중 44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등록생 전체 대비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세부 구분	등록생 전체(51 명)	연구 참여자 (44 명)
성별	여자	41 (80%)	35 (80%)
	남자	10 (20%)	9 (20%)
소속	한국학과 1 학년	46 (90%)	39 (89%)
	타 전공생	2 (4%)	2 (5%)
	Asian Studies 석사	3 (6%)	3 (7%)

### 3.2. 자료 수집 방법

2017 년 가을 학기 Korean 1.1 수업 첫 두 주 동안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내에 따라 자신의 한국어 학습 동기 혹은 한국학 전공 동기에 대한 자유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Essay guide>

Please write freely about your motivation to learn Korean and/or to major in Korean Studies. This is for the teachers to know you better, to understand your needs better, and to make your learning experiences in Leiden as positive as possible.

You can write as much as you want and there is no format or style requirement, but I wish you could describe your motivation to learn Korean / major in Korean Studies at your best. Below are some example topics you may want to include in your ess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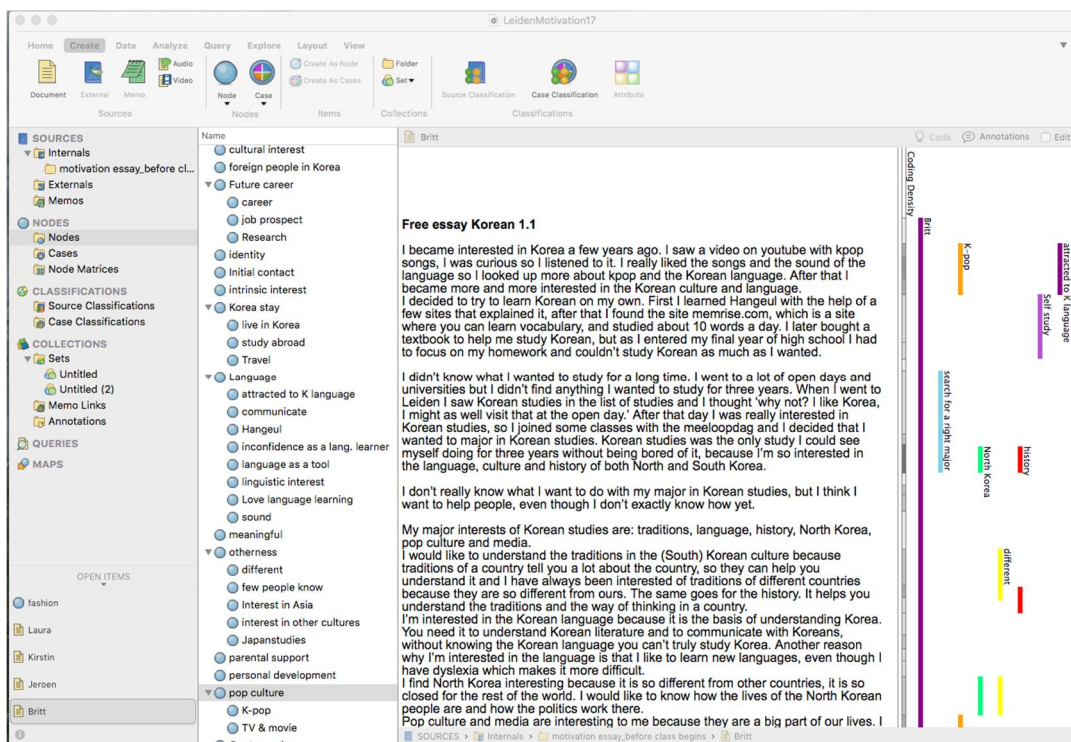
- How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Korea/Korean language? When (what age? Or How long ago?)
- Why did you decide to major in Korean Studies? What is your main motivation?
- Korean language learning is a very important part of your education in Korean Studies.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language? Why? What is your main motivation? I think this question might or might not relate to the previous question.
- Do you already have some experience of learning Korean including self-study? Please explain.
- Do you have any idea (even if it is vague) what you wish to do with the knowledge of Korea/Korean language/Korean culture?
- Where does your major interest (or interests) lie in terms of various foci of Korean Studies? For example, language learning, politics, history, North Korea, business, literature, traditions, popular culture, media, transl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technology, environment, education, etc. If you have many interests, please list them in the order of importance to you. If possible, please elaborate and explain a bit about your interest.
- And more

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 중 가장 긴 것은 1468 단어, 가장 짧은 것은 166 단어를 포함하였다.

### 3.3. 분석 방법

학생들의 에세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도구인 NVivo 를 활용하였다. NVivo 에서 학생들의 에세이를 반복해서 읽으며 학습 동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theme)를 찾아내고 분류를 하여 코딩을 하였다. 아래는 에세이 분석의 예이다.

<그림 1>



## 4. 결과 및 고찰

### 4.1. 왜,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한국학을 전공하게) 되었나?

#### 4.1.1. 한국 혹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한류의 영향

연구 참여자 44 명 중 33 명이 K-pop, 드라마, 영화, TV 버라이어티쇼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혹은 한국어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한국 방문 경험 (3 명), 한국 친구와의 교류 (3 명), 미디어를 통해 접한 한국 소식 (3 명), 한국 관련 전시 관람 (2 명), 혈연 (1 명) 등 여타 계기에 비해,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 검색을 통해 우연히,

혹은 친구의 권유로 10대 초중반부터 한류 콘텐츠를 소비해 왔음을 보고했다. 한국학과에 입학하기 (혹은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수강하기) 이미 수년 전부터 한류 콘텐츠를 즐겼던 학생들의 경우, 한류 콘텐츠 자체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그 관심사를 확장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확장된 관심은 한국학을 자신의 대학 전공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 (1) When I was around eleven/twelve years old I accidentally found out about Korean music and dramas through the internet and I really liked it. From there I started reading about a lot of things related to Korea, like some of the famous historic figures and their stories, and that's where my interest for Korea began.
- (2)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 for at least 9 years now. It started out with accidently finding out about Kpop and just expanded to becoming interested in the country itself, its culture, politics and history.
- (3) It was around 2011/2012 when I discovered K-Pop. [...] To this day I don't know what exactly it is about Korean pop music that makes me like it so much, but I certainly am glad I discovered it. If I hadn't, after all, I wouldn't be a Koreastudies student now. Once 12 year old me had established who her favourite K-Pop groups were, she began the process of learning all their songs (and phonetically the lyrics to them) and all about what the members were actually like. A great help in the latter were Korean variety shows. It was through these especially that I truly got introduced to the Korean language, as in them I actually heard people speak Korean with each other. [...] I really liked the way Korean sounded and was eager to learn more of it. As I became more and more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the Korean language, my interest in (South) Korean culture also grew. As with music and language the way I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this was through YouTube. I discovered an entire section of YouTube dedicated to Korean culture, with videos about every subject imaginable, from etiquette to food and from public transport to karaoke. It really is rather astonishing how much you can learn about an area so far away from your own through the internet and I'm incredibly thankful to be living in a time where such a thing is possible.

#### 4.1.2.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연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다른 언어와 문화,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음을 밝혔다.

- (4)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non-western societies.
- (5) My fascination with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started out when I was about 13 years old.

동아시아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묘사하는 데에 자주 언급된 단어가 “different (difference)”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혹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되는)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 (6) One might pose why Asia would be of particular interest, why not America, Africa or even the familiar European region? In essence it comes down to this: the enormous difference. The dissimilarity in mannerisms on the fundamental level of day-to-day speech, the contrast of how history is chronicled and viewed in contemporary academia, the deviation of what cultural heritage and the being of an independent nation means to Korean citizens. It's the desire to learn more about a place that frankly couldn't be more foreign to me, whilst finding similarities between the lines. It's a journey of discovery which I could not have embarked upon in any other region of the world in a similar manner.
- (7) Ever since I was young I have had an interest in Asia and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An area at the other side of the earth, where everything must be different from the Netherlands, the country I have grown up in. Cultures so different from the one I knew, all these amazing old buildings and interesting rituals. But also the writing. A different solution to the same problem my ancestors had to face; wanting to find a way to write down the sounds of words. A more complex solution than the roman alphabet, but more artistic too.
- (8) Three years ago I was recommended to watch a Korean reality show called Roommate, a show about celebrities living together in a shared house. I soon began to notice cultural differences, which were shocking at first. But as I was watching my curiosity for Korea started to grow, especially because both culture and language are quite different from what I grew up with.

일찌감치 동아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알려진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던 중 한국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기다가 K-pop 을 접하게 되었다든지, 한자를 포함한 중국어나 일본어에 처음 관심을 갖다가 한글을 접하고 한국어에 매료된 경우 등이다. 실제, 한국학 전공생이 아닌 한국어 수강생 전부가 이미 일본어 또는 중국어 학습 경험이 있었고, 한국학 전공생 중에서도 이전에 일본학이나 중국학을 (혹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공부하였거나 전공 선택 전 한국학, 일본학, 중국학 사이에서 고민한 경우도 있었다.

#### 4.1.3. 한국학 – Why not 일본학 or 중국학?

그렇다면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39 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학을 최종적으로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 개개인이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으나 몇몇 학생들의 에세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흥미로운 몇 가지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의 반 이상이 북한 혹은 한국의 분단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9) [...] the sepa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as more interesting to me than the upcoming industry/ economy in China.

(10) I have come to realize that North Korea and its conflict with South Korea, a divided Korea, are amazingly interesting. By means of documentaries and some books I have learned a fair bit about this subject and I'm excited to further expand my knowledge.

(11) I find North Korea interesting because it is so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t is so closed for the rest of the world. I would like to know how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re and how the politics work there.

분단이라는 한국의 현 정치 상황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지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공부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2) Though I do not yet know what I want to do after this study, I do hope to do something that involves the separation and the Korean culture. I heard about volunteers in South-Korea helping North-Koreans integrate in the South. This seemed like an amazing experience to me.

(13) It is my motivation to study a major that is relevant to today's problems, to help understand and provide solutions between the tensions of the two countries and research what makes these two countries so alike culturally in terms of traditional clothing and food, but yet complete opposites of each other in terms of socioeconomic ideologie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is the goal of many people in the world, as it is mine as well.

(14) My main motivation for majoring in Korean is because I'd really like to help NK and SK become united again. They've only been apart for a very short time in comparison to the totality of Korea's very long history. [...], which is then followed by my need to help people which I feel is highly related to North Korea and a need for liberation of its people.

분단 문제 외에도 학업을 통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진 학생들에게 한국학이 매력적으로 다가선 경우도 있었다. 흥미로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없었기에 혹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도 좋은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기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있었다.

(15) Later I would also maybe like to educate other people in the Netherlands about Korea, so that people won't just think of pop music and dictators when they think off the two Koreas.

(16) When I did my endpaper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Japanese culture, I came to know that I could not find any good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traditions and culture. That made me more interested.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특히 두드러진 학생들이 있었다. 언어 자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다수가 한국어의 말소리에 매료되었다고 하였고 (예: beautiful, special, inherently pleasing, attractive, sweet, pretty 등), 배우기 쉽고 독창적인 한글로 인해 (예: logical, artistic, inventive, abstract writing, design of it, incredibly easy to learn / remember)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을 보이거나 한국어 습득을 한국학을 전공하는 최우선 이유로 들었으나, 그보다는 한국어를 한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중요시 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 (17) Learning Korean is essential, for it is the instrument which you can use to connect to Korea.
- (18) I'm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because it is the basis of understanding Korea. You need it to understand Korean literature and to communicate with Koreans, without knowing the Korean language you can't truly study Korea.
- (19) My motivation for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s largely that I would have to be able to read Korean historical sources if I want to properly study Korean history. Of course, I would also love to go to Korea an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people without there being a large language barrier.
- (20) I am interested in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I believe that learning a language is the only way to really learn about a country's culture. If not, you will only ever look at a country through an outsiders' eyes.

한편, 동아시아 지역을 전공으로 선택하려면 언어 습득이 중요함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언어 학습자로서의 자신감이 부족하기에 한국학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었다.

- (21) When I was looking at different studies, I first didn't think I would choose a language, because in high school I wasn't particularly good at languages. [...] I think that the Korean language is a bit easier to learn than Chinese or Japanese.
- (22) What attracts me to Hangeul specifically is its very logical nature, as I'd be the first to admit I'm not the most proficient at memorizing very complex characters. [...] This enables me to combine my fascination for the oriental script with a feasible goal; the learning of one of such scripts. I'm aware that we shall also study some Chinese characters used in Korean language under the name Hanja, however this is still a significantly more viable feat than for example learning Chinese straight up.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데에 있어 언어 외에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는데, 다소 막연하게 한국의 전통에서부터 음식, 패션, 미디어, 과학기술, 문학, 예술 등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이 언급되었다. 이 외 50% 이상의 학생이



역사를 주된 관심사로 꼽았고,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서술한 학생이 소수 있었다. 아직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언어를 비롯 역사, 문화 등 폭넓은 주제를 공부하게 되는 한국학 과정이 마음에 든다는 의견이 제법 있었다.

## 4.2. 초기 학습 동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 4.2.1. 높은 내재적 동기와 낮은 외재적 동기 (도구 목표지향)

많은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혹은 한국학 전공 동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좋아서”라고 할 수 있다. 학습 대상에 대한 딱히 정의하기 힘든 끌림이나 호기심이 초기 동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대한 지식을 미래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23) I am sure that I will use my knowledge of the Korean culture and language but not as for what I will use it for.

(24) I don't really know what I want to do with my major in Korean studies, but I think I want to help people, even though I don't exactly know how yet.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마냥 좋아서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 반 이상의 에세이에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기까지 고심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의 경우, 처음에는 직업적 전망이 밝은 전공을 선택했다가 결국 한두 학기 만에 한국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도 했다. 졸업 후 전망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25) I have been asked plenty of times before why I'm going to study Korean. Quite a logical question, considering the study isn't very well known, nor popular, without a clear job perspective for the future. So many studies available to me, yet I pick this one.

외재적 동기보다 내재적 동기가 높다는 것은 일단 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Noel et al. (2000)이나 Nam(2017)의 연구는 성공적 언어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끈기(persistence)가 내재적 동기(호기심, 흥미)보다는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목표나 이상적 자아상과 더 큰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기 부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어와 한국학에 내재적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 및 한국학 전공과 자신이 가치를 두는 목표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한국학과 프로그램과 교수진의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4.2.2. 미확립된 이상적 제 2 언어 자아

4.2.1 에서 서술한 연구 참여자들의 동기적 특징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아직은 희미한 이상적 제 2 언어 자아이다. 이제 막 한국어와 한국학 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견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 2 언어 동기 자아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상적 제 2 언어 자아의 확립이 끈기와 노력을 포함하는 학습 동기 및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상적 자아상에 대한 끊임없는 시각적 이미지화의 효용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은 아직은 일견 막연한 호기심과 흥미로 한국어 학습과 한국학 전공을 시작한 학생들의 이상적 제 2 언어 자아 확립을 돕는 구체적 방안을 설정하는 데에 참고할 만하다.

#### 4.2.3. 통합 목표지향: 긍정적 조직

높은 수준의 통합 목표지향이 언어 학습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다. 일단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은 통합 목표지향을 보일 것이라 추정되고 이것이 학습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거나 한국인 친구가 있는 몇몇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사용 공동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거의 없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어 학습 과정과 결과에 도움이 되는 보다 강한 통합 목표지향 형성을 돕기 위한 학과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레이던대학교 한국학과에서는 한국에서의 의무 교환 학기 외에도 한국인과의 개인 언어 교환, 주 1 회 한국어 언어 동아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통합 목표지향 강화와 학습 동기 미치는 영향은 추후 연구 대상이다.

### 5.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논문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동기란 “왜”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끈기),”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본 논문은 학습 시작 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에 “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학습 과정 중 보이는 학습자들의 끈기와 노력 및 그에 따른 학습 결과에 초점을 두고 종적 연구를 행하고자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와 인터뷰 등 양적,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할 예정이다. 특히 관심이 가는 주제는 동기의 변화 추이(motivational fluctuation)와 그런 변화를 발생시킨 내적, 외적 요인들이다. 학생들의 동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ahwah, N.J: L. Erlbaum.
-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Dörnyei, Z., & Ushioda, E. (2011).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Harlow: Pearson Education.
- Dörnyei, Z., & Ryan, S. (201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revisited*. New York: Routledge.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Publishers.
- Gardner, R.C. (2010).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Socio-educational Model*. New York: Peter Lang.
- McEown, M. S., Noels, K.A., & Chaffe, K.E. (2014). At the Interface of the Socio-Educational Model,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Modes. In K Csizér & M. Magid (Eds.), *The impact of self-concept on language learning* (pp. 7-18).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Nam, A.R. (2017). *Motivation and Persistence in Learning Korean: Factors Associated with Students' Decisions to Continue or Discontinue FL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Noels, K. A., Pelletier, L. G., Clément, R., & Vallerand, R. J. (2000). Why are you learning a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orientations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Language Learning*, 50 (1), 57-85.